

# 새벽 5시에 문 연 클럽, 청년들 '우르르'

### 밤 10시 이후 제한...오전 5시부터 변칙영업

### 오전 11시까지...새벽 클럽에는 젊은층 몰려

### 클럽 내부 방역지침 준수 여부는 확인 안돼

### 3주동안 영업금지...변칙영업 당분간 불가능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영업이 12일부터 사실상 금지되는 가운데 집합금지를 하루 앞둔 11일 서울 강남 일대 클럽은 새벽부터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를 찾은 결과 일부 클럽 앞은 입장객들이 긴 줄이 이어졌다.

매우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클럽 앞은 왁자지껄한 여는 주말 밤과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이미 동이 터 주변은 환하게 밝은 상태였다.

클럽은 아침 햇살 아래서도 문전성시를 이뤘고 내부에서는 '쿵쿵쿵'하는 비트 소리가 계속 일대를 울려댔다.

현재 유흥시설로 분류되는 클럽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불가능하다. 일부 클럽들은 밤 영업을 마치면 방역작업을 진행한 뒤 오전 5시부터 재차 영업을 나서는 상황이다. 일종의 '변칙 영업'이다.

클럽 이용객들 역시 이 같은 변화에

맞춰 밤이 아니라 새벽에 몰려들고 있다. 이제 '불토'라는 말은 '불타는 토요일 밤'이 아니라 불타는 토요일 아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이날 만난 한 클럽 관계자는 "현재 술집도 그렇고 (클럽도) 오전 5시부터 영업을 가능하다"며 "오후 10시까지 계속 운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6시에 문을 열어) 오전 11시쯤 마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방역 지침 등을 최대한 준수하며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클럽에서는 일단 사람들이 무더기로 나왔다가 재차 입장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입구에는 방역을 위한 손 세정제와 출입 명부 작성용 장비 등이 비치돼 있었다.

다만 클럽 내부에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이 모두 지켜지고 있는지는 확인



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클럽 앞에 젊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된다.

되지 않았다.

클럽 입구만 해도 물려든 인파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일부는 마스크를 내리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벽히 지켜지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클럽들의 이 같은 '변칙 영업'도 당분간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9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편 등이다. 시행 기간은 12일 0시부터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3주간이다.

클럽도 내일부터 3주간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다. 아침 클럽을 즐기려는 이들도 내달 2일까지는 갈 곳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날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14명으로 집계됐다. 5일째 600~700명대의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최이슬 기자

##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 전남 '베스트 지구대' 선정

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 왕조지구대는 전라남도경찰청 주관 2020년 4분기 '베스트 지구대'에 선정돼 전라남도경찰청 표창과 인증패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전라남도경찰청은 도내 지역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중요범죄 감소율, 공동체 치안활동, 탄력순찰 활동 노력 등 여러 지표에서 우수 성과를 받은 베스트 지구대를 선정하고 있다.

왕조지구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이스포싱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간담회 개최, 협력단체 회원 SNS 활용 보이포싱 사례 홍보, 편의점 대상 기프트카드 피싱 예방을 위한 자체 홍보물 제작 등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 금융기관 고객창구 스텐드 홍보물 비치 등 공동체 치안활동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영일 순천경찰서장은 '베스트지구대' 인증패를 부착하고 현장경찰관의 노고를 치하·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동체 치안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보이스포싱, 교통사고,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동부소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시민들의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 할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내용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에 최초 1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최윤희 기자

## 완도해경, 정박어선 비상연락체계 개선을 통한 사고 예방 실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완도항 내 정박어선 현황관 제작과 그룹별 비상연락체계 개선을 통한 대형화재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였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밤낮 큰 일교차로 인해 봄철 어선 화재 발생 소식이 잇따라 전해짐에 따라 완도해경 완도파출소에서는 항포구 순찰 시 어선들이 매번 일정한 위치에 계류·정박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정박어선에 대한 현행행위와 비상연락망 시스템을 개선·보완에 나섰다.

특히, 완도항을 5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별 정박어선 그룹화 실시와 그룹별 현황판을 제작, 대표자 지정을 통해 비상연락체계 일원화로 화재, 침수 선박 발생 등의 긴급상황 시 신속하게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 무안소방, 봄철 전통시장 '점포점검의 날' 운영

무안소방서는 정기개장일인 9일, 11일 무안전통시장 등 2개소를 대상으로 봄철 화재 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점포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상인 중심 점포별 자율 점검 ▲보이는 소화기 ▲소화기 인근 적치물 제거 ▲소방차 길터주기 ▲소방·가스·전기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포점검의 날은 202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대화 사업과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생업과 안전관리에 상인 자율 소방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으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 순천, 고교생 친구 간 확진...젊은층으로 변지나 '긴장'

###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순천 누적 300명 돌파...방역준수 촉구

전남 순천시에서 10일 밤부터 11일 새벽 사이 2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300명을 돌파했다.

11일 순천시방역당국에 따르면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19가 4월 4일 조곡동 외과의원과 의료기기 체험장 집단감염 이후 47명이 감염되는 등 연일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4차 대유행을 우려한 순천시는 5일 정오를 기점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갔으며, 각각 4명씩 환자가 발생한 시골 마을 두 곳을

동일집단 격리시키면서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11일 오전 8시 기준 고등학생(순천 300번)과 다른 지역에서 확진된 시내버스 운전기사(광양 101번)가 감염자로 확인되면서 추가 전파 및 지역 연관성을 놓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순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순천 299번(전남 967번) 확진자는 지난 9일 확진된 순천 291번(전남 959번) 확진자와 동일동선 접촉자로 지난 안전문자를 통해 동선을 확인해 진단검사 후 확진됐다.

11일 새벽에 통보된 300번(전남 970번) 확진자는 고등학교 2학년인 순천 298번(전남 966번)과 같은반 학생으로 임시 이동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후 확진됐다.

고교생 확진자 발생에 따라 동선 추적 및 정밀 역학 조사를 펼치고 있으며, 교직원과 학생 766명에 대해 전수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태다

시는 또 광양에서 확진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광양 101번)와 관련해 11일 순천교통, 동선교통 시내버스 운전기사 340여 명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밀접촉 운전기사 40여 명은 2주

간 자가격리하고, 11일부터 2주간 12개 노선 단축 운행, 5개 노선 결행 등 시내버스 감축 운영을 결정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 일상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 다른 지역 방문 및 외부인 접촉 자제 등 적극적인 방역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문의: junsol@junsol.com

준솔루션